

침체된 번호이동 시장에 '갤럭시노트9' 구원투수 될까

오늘부터 이통3사 예약판매 돌입

SKT 통신비 자동할인·신용카드 혜택
KT 아이콘X·무료 데이터 제공 등
LG U+ 프로모션·사은품 선택 수령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오는 13일부터 삼성전자의 새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9' 예약판매에 돌입한다. 올해 들어 잠잠한 이동통신 번호이동 시장이 갤럭시노트9 출격으로 파동이 일어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오는 21일 갤럭시 노트9 국내 출시를 앞두고 13일부터 사전예약에 나선다. 갤럭시 노트9의 출고가는 128GB 기준 109만 4500원, 512GB 기준 135만 3000원이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정식 출시까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갤럭시 노트9이 그간 침체된 이동통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갤럭시 노트9은 지난 3월 '갤럭시 S9' 출시 이후 선보이는 삼성전자의 전략 프리미엄폰이다. 지난 10일 새벽 미국 뉴욕에서 공개된 갤럭시 노트9은 전작 대비 0.1인치 커진 6.4인치 인피니트 디스플레이



모델들이 SK텔레콤의 '갤럭시 노트9' 예약판매 진행 소식을 알리고 있다. /SK텔레콤

와 다이아몬드 커팅 디자인을 적용했다.

특히 블루투스를 탑재한 S펜은 리모트 컨트롤 기능으로 셀카 촬영, 프레젠테이션 페이지 이동, 음악 재생 등 원격제어가 가능하다. 또 반투명 사진을 밑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PENUP 기능, 꺼진 화면 메모, AR이모지에 메시지를 작성할 수 있는 라이브 메시지 등 S펜 기능도 확대했다.

이동통신사는 갤럭시 노트9의 출시로 번호이동 시장에 반동이 일어날지 기대하고 있다. 올해 들어 번호이동 건수는 월 평균 50만건 아래로 떨어질 정도로 잠잠

했다. 정부의 잇따른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스마트폰 유통 시장이 축소되고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길어진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월평균 번호 이동 건수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25.7% 줄어든 46만 1004건으로 집계됐다. 50만건을 넘은 것은 '갤럭시S9'이 출시된 3월 뿐이다.

이동통신사는 가입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할인 혜택을 실으며 마케팅 경쟁에 나섰다.

SK텔레콤은 전국 1300여개 T월드 매장에서 갤럭시 노트9 체험존을 운영한다. 방문 고객은 S펜에 추가된 블루투스 리모콘 기능을 이용해 '옥수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영상 되감기, 일시 정지 기능 등을 이용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11번가, 이마트 등 제휴처 이용 금액에 따라 통신비를 자동으로 할인해주는 '적척할인'을 마련했다. 24개월간 최대 35만 4800원의 통신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별도 이용료 없이 결합할인, 신용카드 할인 등과 중복해 받을 수 있다. 'T삼성카드V2'를 이용하면 24개월간 최대 45만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월 30만원 이상 사용 시 24개월간 월 1만

5000원 청구할인을 제공하고 캐시백 9만 원을 받을 수 있다.

KT는 지난 10일부터 광화문 KT스퀘어를 비롯한 전국 1000여개 S·Zone 매장에서 갤럭시 노트9을 전시하고 사전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512GB 모델을 사전예약하고 25일까지 개통한 고객에게는 사은품으로 블루투스 이어폰 아이콘X가 제공되며, 디스플레이 파손 교체 비용(50%, 2회 한정)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128GB 예약가입 고객은 8월 개통고객 공동혜택으로 AKG헤드폰 혹은 듀얼충전기+보조배터리 가운데 하나를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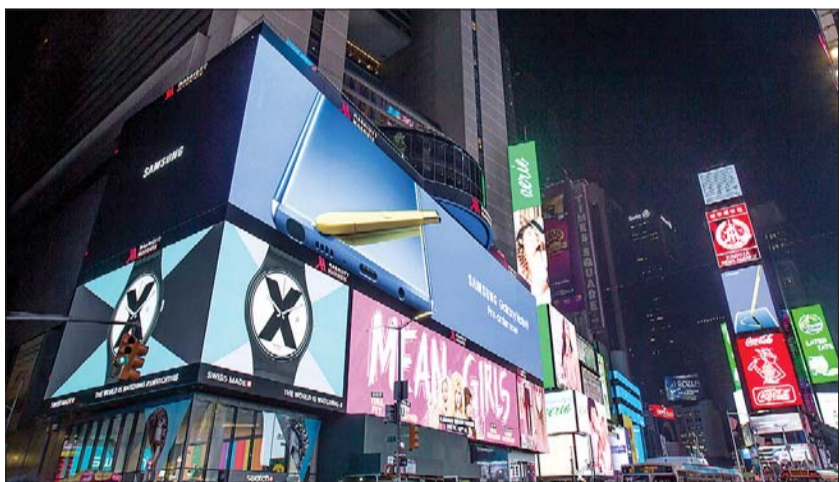
이와 함께 갤럭시노트9으로 인기 게임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무료 아이템과 무료 데이터 혜택을 제공하는 'KT 플레이게임'을 최초로 선보인다. 'KT 플레이게임'이란 KT 갤럭시 노트9에서만 제공되는 특별한 프로모션으로, 단말기에 탑재된 인기 게임 4종(FIFA ONLINE 4 M, 검은사막 모바일,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오버히트) 실행 시 스페셜 아이템(FIFA 5종쿠폰, 팻상자, 구사일생 후라이팬 스킨, 전설영웅쿠폰)을 무료로 제공하고, 게임 구동 후 플레이에 소모되는 데이터가 과금되지 않는 제로레이팅 서비스다.

LG유플러스는 이달 말까지 갤럭시 노트9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S펜을 활용해 휴대폰에 일상을 그린 '나의 일상을 S펜으로 그리다'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고객들은 노트9에서 MMS로 받은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하면 프로모션 참여가 가능하다. 당첨자는 내부 심사와 대고객 투표 이벤트를 통해 선정된다. 우수상으로 뽑힌 고객들은 PS4 PRO VR플레이트, 까미노 볼트 전기자전거, 바다프렌드 뉴크루즈 파워 등 경품이 제공된다.

공식 온라인몰 'U+Shop'에서 노트9을 예약하면, ▲브리즈 블루투스 이어셋 ▲듀얼 고속 무선충전 패드 ▲스웨이블 ▲무선 블루투스 스피커 ▲모션 감지 차량용 무선 충전 거치대 ▲올리브영 상품권 등 6종의 사은품 중 1가지를 선택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이전과 달리 프리미엄 스마트폰 출시로 눈에 띄는 이동통신 시장 활성화가 일어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스마트폰 성능 상향 평준화로 인해 단말 교체 주기가 길어지는 현상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선택약정 할인 가입자 증가 등으로 번호이동이 줄어들고 예전처럼 프리미엄 스마트폰 신제품에 대한 반응도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갤럭시노트9 전세계 출시 홍보



세계 곳곳 '갤럭시노트9' 대형 옥외광고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9 공개 직후 미국, 영국 등 주요 도시에서 대형 옥외광고를 진행하며 글로벌 소비자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갤럭시 노트9은 한 단계 진화한 스마트 S펜, 촬영 장면을 인식해 자동으로 색감을 조정해주는 인텔리전트 카메라, 4000mAh 대용량 배터리와 외장 메모리 사용시 최대 1TB 용량을 지원하는 메모리 등 강력한 성능을 갖췄다. 갤럭시 노트9은 8월 24일부터 글로벌 시장에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대로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영국 런던 피카딜리 서커스, 러시아 모스크바 하이테크프로젝트 옥외광고의 모습.



싱가포르서도 이어진 출시 행사

삼성전자가 10일(현지시간) 싱가포르의 유명 랜드마크인 마리나베이의 초대형 식물원 '가든스 바이 더 베이'에서 갤럭시 노트9 출시를 알리는 파워 워드 더 스타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현지 미디어·거대선·소비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특히 현지에서 한류 열풍을 이끌고 있는 가수 김중국과 배우 박민영이 참석해 갤럭시 노트9의 혁신 기능을 직접 소개했다.

가수 김중국은 갤럭시 노트9의 스마트 S펜을 활용해 참석자들과 함께 셀피를 촬영했다. 본인이 S펜으로 직접 그린 그림을 팬들에게 선보였다. 배우 박민영은 개인의 바쁜 일상과 스케줄을



싱가포르에서 열린 갤럭시 노트9 출시 행사에 참석한 배우 박민영이 팬들과 갤럭시 노트9으로 셀피를 촬영하고 있는 모습.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9을 활용해 관리하는 모습을 시연했다.

삼성전자는 25일 갤럭시 노트9의 정식 출시를 앞두고 15일부터 싱가포르의

파워 워드 더 스타·갤럭시 스튜디오 등 혁신 기능 소개·소비자 체험 공간 마련

상업 중심지 비보시티에 갤럭시 스튜디오를 운영한다. 갤럭시 스튜디오는 갤럭시 노트9뿐 아니라 스마트 워치인 갤럭시 워치, 프리미엄 태블릿 갤럭시 탭 S4 등 삼성전자의 최신 제품을 현지 소비자들이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꾸며진다. 삼성전자는 현지 출시에 맞춰 사회 공헌 활동도 함께 진행한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서명 캠페인을 통해 10만명 참여 목표를 달성할 경우 노인을 위한 병원과 복지재단 등 5곳에 10만 싱가포르 달러를 기부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에서 동남아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출시 행사를 진행한다. /안병도 기자

차 안에서 좌석마다 다른 노래 즐긴다

현대·기아자동차

엔터테인먼트 기술 강화... 편의성 ↑

현대·기아자동차가 엔터테인먼트 기술 강화를 통해 탑승객들의 편의성 높이기 위해 나섰다. 같은 자동차 안에서 좌석마다 서로 다른 음악을 간섭 없이 들을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 것이다.

현대·기아차는 12일 차세대 음향 기술인 '독립음장 제어 시스템'(SSZ)의 기술 설명자료를 자사 미디어 채널인 HMG 저널과 유튜브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했다.

한 가족이 차를 타고 이동할 때 클래식을 좋아하는 부부와 최신 팝송을 듣고 싶어하는 아이들 간에 음악적 취향이 달라서 보통 아이들은 이어폰을 끼고 원하는 음악을 듣는다. 이런 상황은 가족이 같은 공간에 있지만 단절된 느낌을 갖게 한다. 하지만 독립음장 제어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을 탄다면 대화를 하면서도 각자의 취향에 맞는 음악을 들을 수 있다.

현대·기아차에 따르면 독립음장 제어



이강덕 연구위원(오른쪽)과 연구원들이 독립음장 제어 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는 모습.

시스템은 운전석, 보조석, 뒷좌석 등 차량 내 각 공간에서 독립된 음향을 들을 수 있도록 음장을 형성·제어하는 기술이다. 차량에 내장된 여러 개의 스피커가 동시에 다른 음향을 낼 때 나오는 소리의 파장을 서로 감쇄시키거나 증폭시키는 원리를 이용해 좌석별로 원하는 소리가 재생되도록 하는 것이다. 각 좌석에서 다른 음악을 틀어도 음이 중첩해 들리는 간섭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 마치 방음시설을 구비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양성문 기자 ysw@

포스코대우, 친환경 생활문화 위해 보틀 제공

포스코대우가 정부의 페플라스틱 줄이기에 적극 동참한다.

포스코대우는 플라스틱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13일부터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용 보틀을 지급하고, 직원들이 사옥 내 입주사 매장에서 보틀을 사용할 경우 할인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환경부에서 추진중인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직원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친환경 생활문화 정착이 회사의 기업 문화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또 인천지역 랜드마크 빌딩으로 알려진 포스코타워 송도사옥에 입주한 식당과 카페에서도 플라스틱 용기를 종이 포

장재로 변경하고, 사옥 내 쓰레기 분리배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일회용품 사용과 배출을 줄여나가는 데 동참하도록 협조를 구했다.

특히 이번에 임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보틀은 회색, 파랑, 주황 등 세가지 색상으로 제작했으며 사전에 본부별로 색상을 추천해 선정하는 등 캠페인 동참에 재미를 더했다. 직원 개인의 영문 이니셜을 삽입해 배포함으로써 직원 개개인이 이번 환경보호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도록 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뒀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직원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보온·보냉 기능을 갖춘 고성능 제품으로 보틀을 제작했다. /양성문 기자